WEBVTT

00:00:09.498 --> 00:00:12.445
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
김태동 선생님입니다.

00:00:12.545 --> 00:00:13.483
반갑습니다.

00:00:13.583 --> 00:00:18.053
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
책이 오감도 기본편입니다.

00:00:18.153 --> 00:00:20.320
오감도라는 책은 아주
유명한 책이죠.

00:00:20.420 --> 00:00:22.633
신사고에서 나온 책인데요.

00:00:22.733 --> 00:00:24.344
여러분을 위해서,

00:00:24.444 --> 00:00:28.627
그러니까 수능에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부터
시작하는 게 바로 기본편입니다.

00:00:28.727 --> 00:00:31.905
제가 맡은 부분이 신사고에서
오감도 기본편하고

00:00:32.005 --> 00:00:33.958
그다음에 비문학을 맡았어요.

00:00:34.058 --> 00:00:36.838
기본편에는 비문학 내용도
같이 들어가있습니다.

00:00:36.938 --> 00:00:39.305
여러분, 콘텐츠 부분
제일 앞에 보면

00:00:39.405 --> 00:00:43.597
이 책의 차례 부분이 보일 겁니다.

00:00:43.697 --> 00:00:46.999
보이시나요? 이렇게
차례 부분을 보면,

00:00:47.099 --> 00:00:49.374
전체 내용이 전부 다
아울러 있습니다.

00:00:49.474 --> 00:00:56.106
운문 문학부터 산문 문학, 비문학
독서, 그다음 문법, 화법 장문까지

00:00:56.206 --> 00:01:00.552
수능에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이
전부 다 소개가 되는 내용입니다.

00:01:00.652 --> 00:01:02.903
이 강의 내용은 보시면 알겠지만

00:01:03.003 --> 00:01:04.855
유형 연습이라는 게 있습니다.

00:01:04.955 --> 00:01:07.085
문제를 유형별로 나누는 거고요.

00:01:07.185 --> 00:01:11.558
그거에 대해서 제가 팁이라든가
이런 거를 드리면서

00:01:11.658 --> 00:01:14.186
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진행할 거고.

00:01:14.286 --> 00:01:17.005
그다음에 밑에 보면 실전 다지기
문제들이 들어가있습니다.

00:01:17.105 --> 00:01:20.715
이 실전 다지기 문제는 실전
수능 유형처럼 바뀌는 거를

00:01:20.815 --> 00:01:23.909
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는
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

00:01:24.009 --> 00:01:27.312
작년까지 수능이 많은
변모를 보였습니다.

00:01:27.412 --> 00:01:30.728
이게 재작년부터 바뀐 거로
제가 기억을 하는데요.

00:01:30.828 --> 00:01:32.859
질문 내용이 상당히 길어지고

00:01:32.959 --> 00:01:35.470
그다음에 문제들도
상당히 어려워지고요.

00:01:35.570 --> 00:01:38.378
문법에서도 비문학이 나타나고

00:01:38.478 --> 00:01:41.426
그다음에 비문학과
문학이 엮이기도 하고

00:01:41.526 --> 00:01:43.021
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.

00:01:43.121 --> 00:01:45.373
그러나 기본은 변하지
않는다는 겁니다.

00:01:45.473 --> 00:01:47.171
그 부분은 바로 뭐냐면,

00:01:47.271 --> 00:01:49.312
어차피 출제자가 원하는
거는 딱 하나예요.

00:01:49.412 --> 00:01:53.778
너희들 이 글 제대로 이해했니?
이런 뜻 아니겠어요?

00:01:53.878 --> 00:01:55.604
그러니까 이 글을 제대로 이해했니?

00:01:55.704 --> 00:01:57.728
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항입니다.

00:01:57.828 --> 00:01:59.498
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문항이에요.

00:01:59.598 --> 00:02:02.720
여러분에게 제가 요구하고
싶은 거는 딱 하나입니다.

00:02:02.820 --> 00:02:05.930
예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
복습을 해주시라는 겁니다.

00:02:06.030 --> 00:02:08.577
물론 모든 선생님들이
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

00:02:08.677 --> 00:02:12.622
예습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
미리 풀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.

00:02:12.722 --> 00:02:15.405
문제 풀어오시고 그다음에
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이랑

00:02:15.505 --> 00:02:17.727
비교해보는 게 좋을 것 같죠.

00:02:17.827 --> 00:02:20.239
제가 성적이 안 오르는 방법을
하나 알려드릴 겁니다.

00:02:20.339 --> 00:02:22.455
뭐냐면 문제를 풀어요.

00:02:22.555 --> 00:02:25.578
그다음에 정답 확인을 하죠.

00:02:25.678 --> 00:02:28.414
그리고 해설지 확인하고.

00:02:28.514 --> 00:02:32.053
이렇게 한번 공부해보면 반드시
성적이 안 오를 겁니다.

00:02:32.153 --> 00:02:33.193
무슨 뜻이냐?

00:02:33.293 --> 00:02:34.197

문제를 풀죠.

00:02:34.297 --> 00:02:35.743
오, 엑스 정답만 확인해요.

00:02:35.843 --> 00:02:39.263
그다음에 왜 틀렸는지 오답 체크가
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.

00:02:39.363 --> 00:02:42.245
내가 예를 들어서 3번을
정답이라고 했으면

00:02:42.345 --> 00:02:43.509
만약에 틀렸어요.

00:02:43.609 --> 00:02:46.295
그러면 3번이 왜 틀렸는지도
확인하셔야 되고

00:02:46.395 --> 00:02:51.187
나머지 1번, 2번, 4번, 5번
선택지는 왜 맞았는지 왜 틀렸는지

00:02:51.287 --> 00:02:52.771
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체크를 하면

00:02:52.871 --> 00:02:58.047
이 한 권을 여러분이 소화하면
수능에 가장 기본적인 틀,

00:02:58.147 --> 00:03:00.881
물론 아주 심화된 내용까지는
들어가지 않지만

00:03:00.981 --> 00:03:03.777
수능에 가장 기본적인 틀은
완성할 수 있습니다.

00:03:03.877 --> 00:03:07.220
그러고 나서 그다음에
EBS의 내용이라든가

00:03:07.320 --> 00:03:10.557
아니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,
연계된 내용들도 들어가 있으니까

00:03:10.657 --> 00:03:14.305
그다음에 여러분이 다음 단계로
넘어가면 되는 거죠.

00:03:14.405 --> 00:03:17.764
기본편이라고 해서 문제가 그냥 기본적인
문제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

00:03:17.864 --> 00:03:20.316
심화된 내용도 물론
들어가 있습니다.

00:03:20.416 --> 00:03:24.297
여러분의 글 읽기 능력, 수능에서

국어 문제를 푸는 능력,

00:03:24.397 --> 00:03:27.760
이것을 키워나가는 게
이 책의 목표이고

00:03:27.860 --> 00:03:30.029
제 수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.

00:03:30.129 --> 00:03:33.375
이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
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,

00:03:33.475 --> 00:03:36.201
국어는 만약에 정답이 3번이면

00:03:36.301 --> 00:03:40.485
100% 3번이 정답이
아닐 수도 있습니다.

00:03:40.585 --> 00:03:41.827
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.

00:03:41.927 --> 00:03:45.528
만약에 수학에서 3번이 정답이면
나머지 1번, 2번, 4번, 5번은

00:03:45.628 --> 00:03:48.368
답이 될 확률이
0%잖아요, 아예 없어요.

00:03:48.468 --> 00:03:53.766
그런데 국어는 답이 3번이면 3번이
답이 될 확률이 97% 정도 되나?

00:03:53.866 --> 00:03:55.135
그 정도 될 것 같아요.

00:03:55.235 --> 00:03:56.514
그래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

00:03:56.614 --> 00:03:59.667
국어 문제에서만 나오는
게 가장 적절한 것은?

00:03:59.767 --> 00:04:00.995
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.

00:04:01.095 --> 00:04:03.086
머릿속에 어떤 사고를
가지면 좋냐면,

00:04:03.186 --> 00:04:07.731
연관성이 있는지 이 지문 내용과
이 선택지가 연관성이 있는지

00:04:07.831 --> 00:04:08.955
이거를 따지면 되고.

00:04:09.055 --> 00:04:13.362
연관성이 있다, 유사하다,

또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다.

00:04:13.462 --> 00:04:15.567
그러면 그게 정답이 될
수 있는 거예요.

00:04:15.667 --> 00:04:18.227
반드시 필연적이다, 이렇게
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.

00:04:18.327 --> 00:04:20.876
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,

00:04:20.976 --> 00:04:22.741
간혹 가다가 이과형
학생들이 있어요.

00:04:22.759 --> 00:04:25.428
이과형 학생들이라고 제가
이름을 붙였는데 뭐냐면,

00:04:25.499 --> 00:04:26.977
이과형 학생들이 선생님한테
질문을 합니다.

00:04:27.022 --> 00:04:28.532
선생님 이게 답이 몇 번이에요?

00:04:28.632 --> 00:04:29.677
여기 답이 3번인데?

00:04:29.777 --> 00:04:32.528
3번? 선생님, 이게
반드시 3번인가요?

00:04:32.628 --> 00:04:33.764
무슨 이야기야?

00:04:33.864 --> 00:04:37.234
예외도 있지 않나요? 이런 질문을
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.

00:04:37.334 --> 00:04:40.187
그러면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
뭔가 설명하려고 노력하겠죠.

00:04:40.287 --> 00:04:42.337
그러면 친구들이 항상
하는 이야기가 뭐냐면

00:04:42.437 --> 00:04:44.459
마지막에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.

00:04:44.559 --> 00:04:48.109
선생님, 문제가 썩 좋은 문제가 아니죠?
이렇게 이야기한다고.

00:04:48.209 --> 00:04:49.754
이과 학생들의 기본입니다.

00:04:49.854 --> 00:04:52.289

물론 이과 학생뿐만
아니라 다른 학생들도

00:04:52.389 --> 00:04:54.459
이런 성향을 보이는
학생들이 있어요.

00:04:54.559 --> 00:04:58.546
이거는 기본적으로 국어라는 과목에
대한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됩니다.

00:04:58.646 --> 00:05:02.519
뭐냐면 3번이 답이 될 확률이
100%는 아니라는 거죠.

00:05:02.619 --> 00:05:05.370
물론 예외적인 게
있을 수도 있습니다.

00:05:05.470 --> 00:05:10.428
그렇다고 해서 이 예외에
대한 내용을 고민하기보다

00:05:10.528 --> 00:05:13.406
고민해서 문제를 풀면
아예 문제를 못 풀죠.

00:05:13.506 --> 00:05:15.220
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.

00:05:15.320 --> 00:05:23.242
어떤 시인이 본인의 시로
문제 만든 것을 풀어봤대요.

00:05:23.342 --> 00:05:26.187
그런데 10 문제 중에
절반도 못 맞혔답니다.

00:05:26.287 --> 00:05:30.488
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
시인이 생각하면서 쓴 내용이

00:05:30.588 --> 00:05:32.928
1, 2, 3, 4, 5번
선택지 안에 없었던 거죠.

00:05:33.028 --> 00:05:35.578
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예요.

00:05:35.678 --> 00:05:38.557
주관식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
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.

00:05:38.657 --> 00:05:41.300
그 객관식 문제를 푼다는
이야기는 거기 안에서

00:05:41.400 --> 00:05:43.329
가장 적절한 거를 찾아내야 되고

00:05:43.429 --> 00:05:46.566

거기 안에서 가장 논리적으로
접근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

00:05:46.666 --> 00:05:50.520
100% 답이 아닐 수 있어요.

00:05:50.620 --> 00:05:52.929
이런 마인드를 꼭 가졌으면 좋겠고.

00:05:53.029 --> 00:05:56.984
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서 의문나는
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

00:05:57.084 --> 00:06:01.374
바로 바로 질문을 좀 올려주면 제가
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고요.

00:06:01.474 --> 00:06:06.492
그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
옆의 친구랑 상의하는 것도

00:06:06.592 --> 00:06:07.970
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.

00:06:08.070 --> 00:06:09.825
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면

00:06:09.925 --> 00:06:12.573
그게 오히려 내 실력이 느는
방법 중에 하나거든요.

00:06:12.673 --> 00:06:15.634
그런 방법들도 괜찮으니까
그렇게도 한번 해봐도 좋고.

00:06:15.734 --> 00:06:18.560
마지막에 선생님한테 도움을
청하셔도 좋습니다.

00:06:18.660 --> 00:06:20.412
열심히 수업을 준비했습니다.

00:06:20.512 --> 00:06:24.280
그러니까 첫 번째 1강부터
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

00:06:24.380 --> 00:06:27.607
1강에서 바로 뵐게요,
수고하셨습니다.